

육계 더위 스트레스 예방과 생산성 향상

본격적인 여름 더위는 장마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휴가철도 7월말에서 8월까지 이어질 정도로 낮기온이 35℃를 넘는 경우도 빈번하고 심지어는 열대야(밤기온이 25℃를 넘는 현상) 현상도 자주 일어나므로 계사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 이다.

수년간 육계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중 여름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히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육계 사육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물(급수)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고 있고, 온도, 환기 및 깔짚 등 사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내 농장에 들어온 병아리는 농장주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 중 섭
두리축산 대표/육계 컨설턴트

1. 환경 관리

1) 환을 이용한 관리

농장에서 환을 비치하지 않은 농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준다. 30℃ 이상의 고온기간이 지속될 경우 계사내 풍속을 가급적 초당 1m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령이 높을수록

닭들이 열을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때는 초당 2m 이상 만들어야 보다 효과적이다. 이는 무창 계사 개념으로 터널식 환기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많은 농장에 권장하고 있으나 폐사를 줄여주는 대신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여 성장률이 지연되는 단점도 나타날 수 있다. 전체 면적에 고르게 공기가 흐를 수 있기 위해서는 중형 환을 지그재그형식으로 배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2) 물을 이용한 관리

물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스프레이를 통해 가장 더울 때 물을 분사시키면 내



부 열을 3℃ 이상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습도를 높여 폐사율을 높일 수 있어 높이를 조절하여 적당량을 분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일부 농장에서는 습을 낮추기 위해 물을 분사하고 닭에게 물 분자가 떨어짐과 동시에 헐을 돌려 습을 날려버리는 방법을 쓰는 농가도 있다.

지붕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루중 최저온도는 해뜨기 30분전이며, 최고온도는 오후 4시경이고 습도는 오전에 90%, 4시경에 50~5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인 오후 2~3시경에 지붕에 물을 뿌려(4회 정도/1일)주면 계사내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깔짚의 중요성

육계농가에서 한가지 고민이 더 생겨나고 있

다. 깔짚 구입하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생산성을 감소시켜야하는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깔짚을 연속 사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발효계분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사육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깔짚에 덩어리가 생기고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왕겨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추시 왕겨를 보충하여주고 사육과정중에 적절하게 보충하여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2. 영양관리

1) 사료급여

35℃가 넘는 무더위가 예견될 경우 사료를 늦춰서 급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닭이 사료를 먹는 만큼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더

울 때를 피해서 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더위 폐사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즉, 오전 10시 정도까지만 급이를 한 후 다음 급이는 계사 온도가 떨어지는 저녁때 급이를 하는 방법으로 많은 농장에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료를 급여함에 있어 사료빈(벌크통)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사료빈의 온도가 높아질 경우 사료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기호성이 낮아져 닭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료의 온도가 60℃가 넘을 경우 단백질의 변성이 나타나는데, 직사광선이 내리쬐릴 때 사료빈 내부의 온도가 70℃까지 높아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 사료빈 중심으로 차광망을 설치하거나 사료빈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열을 반사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단열 재질을 이용해 사료빈을 덮어 원천적으로 열을 차단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많은 농가에서 농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2)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물은 닭의 75% 이상을 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육계농장들이 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육계 5만수를 42일 동안 사육할 경우 약 260톤(수당 약 5.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여름철과 같은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 물 소비량은 증가하며 지방, 단백질, 염분 및 칼륨 등과 같은 사료성분의 변화

도 물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등 사료섭취량과 물과의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무리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이라도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 부유물과 균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하는 농장에 물을 여과시켜 활성화시켜주는 장치를 한 결과 닭들이 폐사율이 줄고 생산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좋을 경우 닭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닭이 물맛을 알 수 있게 농장 관리인들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장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닭들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하는데 사료섭취량은 줄고 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바닥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증체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C 또는 비테인 제제를 오전에 투여하고 음수량이 증가하는 오후에는 전해질제제를 투여함으로써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을 권장해주고 싶다.

3. 계육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자

말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삼계탕이 모자랄 정도로 소비가 잘되고 있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닭 가격도 어느 복경기 못지 않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산자들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안전한 닭고기 생산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닭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시화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많은 도계장에서 휴약기간을 철저히 검사하여 도계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휴약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하여 폐사가 날 경우 어느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질병이 발생하면 부득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계열업체와 농장들간의 신뢰속에 소비자를 위한 출하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여름을 나기위해 농장 여건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찾기 보다는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 동광공업)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대표 : 최 성 태 전화 : (055)374-8461~2

휴대폰 : 011-374-8461~2 팩 스 : (055)375-8461